

스티브 팩스톤(Steve Paxton)의 작품에서 나타난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에 관한 연구: 〈Satisfyin' Lover〉, 〈Bound〉, 〈Contact at 10th & 2nd〉를 중심으로*

김 현 희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박사과정

목차

1. 서론
2. 일상과 일상적 움직임
 - 1) 일상의 개념
 - 2)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
3. 스티브 팩스톤의 작품 활동
4. 작품에서 드러나는 일상적 움직임 특성
 - 1) 〈Satisfyin' Lover〉(1967)
 - 2) 〈Bound〉(1982)
 - 3) 〈Contact at 10th & 2nd〉(1983)
5. 결론

* 본 논문은 2017년 김현희의 석사학위논문 「스티브 팩스톤(Steve Paxton)의 작품에서 나타난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에 관한 연구: Satisfyin' Lover, Bound, Contact at 10th & 2nd를 중심으로」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요약문

본 논문의 목적은 스티브 팩스톤의 작품에서 드러난 일상적 움직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오랜 시간동안 고급문화로서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향유되는 특별한 대상으로서 인식되어왔다. 일상과 예술의 간극은 크게 존재해왔고 때문에 예술작품에서 일상적인 요소의 출현은 사회적 변화를 수반한 대중의 인식전환을 의미한다.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시대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사회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사회로서 급변하는 정세를 배경으로 가진다. 이 시기의 변화는 학자들에게 일상과 관련한 개념들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졌으며 예술가들에게는 총체성을 거부하는 다원주의 성향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정신으로서 영향을 미쳤다. 같은 시기 현대 무용역시 포스트모던댄스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무용은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드슨 댄스 씨어터를 비롯한 무용가들을 필두로 포스트모던댄스는 전개되었다. 저드슨 댄스의 설립자 중 한 명인 스티브 팩스톤은 머스 커닝햄의 무용수로 활동을 하며 움직임이 생성되는 과정과 계급적인 사회구조를 지닌 무용단의 생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일상적인 동작을 그대로 작품에 실현하는 시도로서 초기 작품 활동에 드러난다.

일상적인 동작의 활용이 포스트모던댄스의 공공연한 특징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주목한 선행연구가 드물다는 점, 그리고 팩스톤 관련 연구들은 접촉즉흥에 관련한 것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때문에 접촉즉흥 기법에 치중하기 이전 일상적인 동작의 사용으로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것에 주목하여 그 연결선상으로서 이후의 작품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팩스톤의 작품인 〈Satisfyin' Lover〉, 〈Contact at 10th & 2nd〉, 〈Bound〉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상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일상에 관련한 개념을 고찰하고 포스트모던댄스의 무용사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저서와 학술 논문, 무용기사 및 평론을 참고하여 진행

하였다.

팩스톤은 무용적 정제를 거치지 않은 일상에서의 동작을 작품에 그대로 차용하였으며 그 시작으로 보행동작은 비무용수인 공연자들의 보행으로서 일상적인 움직임에 미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팩스톤이 심취한 접촉즉흥의 움직임 역시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중시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측면을 지니며 이후의 작품인 〈Bound〉에서도 그는 이완된 신체로 평범한 동작들을 선보였다. 작품에 등장한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은 반복되는 삶에서의 실천과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것이라는 기준으로서 분석되었다. 그의 작품에 내재된 일상적 움직임은 한 시대의 무용장르의 변화를 비롯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온 무용예술 작품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대변하는 것이다. 파격적인 시도와 실험성으로 점철된 그의 활동은 현대무용이 지녔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보다 높게 평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스티브 팩스톤, 일상적 움직임 특성, Satisfyin' Lover, Contact at 10th & 2nd, Bound, 현대무용, 포스트모던댄스

1. 서론

196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여러 예술장르를 관통하는 예술사조로 전 문화적인 변화양상을 보였다. 여기에는 후기 자본주의사회의 대량생산 그리고 대량소비에서 비롯된 사회정신이 내재되어있다. 이는 이성의 억압에서 해방되고자하는 동시에 인간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예술장르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실험적 양식으로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변동은 필연적으로 일상생활의 미학화를 불러왔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기와 1920년대에 나타나, 자신들의 작품과 저작물들, 심지어는 삶 그 자체를 통해 예술과 일상생활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을 넘으려 노력했던 이튼바 다다와 아방가르드 및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에 의해서 나타나며 삶을 예술작품화 하려는 기획과 연관되어있다.¹

포스트모더니즘의 일상적인 특성은 네오다다이즘과 플럭서스의 개념과도 맞물려져있으며 총체성 그리고 질서를 재현하는 것을 거부하는 예술적인 성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일상과 예술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은 기존의 예술이 특정계층들에게 향유되어왔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당한 시대적인 혹은 관념적인 변화가 내재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시대 무용예술에서 역시 일상적인 특성은 언급되어지고 있다. 다소 늦은 인식의 전환을 보여온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 예술사조에 재편성된 포스트모던댄스는 안무가들의 저항심에서 비롯된 변화의 하나로서 일상적 특성을 지닌다. 대표적인 무용가로 저드슨 댄스 씨어터의 구성원들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저드슨 댄스의 설립자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무용가로서 스티브 팩스톤을 주목하였다. 접촉즉흥의 안무법을 창안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팩스톤은 미국의 대표적 현대무용가이며 포스트모던댄스의 시

¹ 오양숙, 「포스트모던 예술과 일상생활의 상호 관계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74쪽.

기를 대표하는 무용가이기도하다. 모던댄스가 발레의 정형성에서 벗어나고자 시작되었다면 포스트모던댄스는 정형화되어가는 모던댄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시대의 권위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있던 젊은 무용가들의 도전적인 실험정신이기도 하다. 이들은 일상의 동작을 작품에 사용하고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타장르와의 협업과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일상성에 주목한 연구는 김다정(2014), 이운정(2006), 오양숙(2003) 등이 있으나 포스트모던댄스의 일상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박서영(2014)외에 찾아보기 힘들며 이 역시 일상성이 컨템포러리댄스에서 표출된 형태를 연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팩스톤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그가 창안한 접촉즉흥에 관련한 것에 치중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적 특성이 지닌 무용사적 가치를 고찰하여 동시대에 이루어진 일상의 미학화 현상과 무용장르와의 연관성을 조명하고 그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에 목적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으로서 일상적인 요소가 무용장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팩스톤의 작품을 분석하고 이것이 무용사적 흐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연구하였다. 작품은 〈Satisfyin' Lover〉(1976), 〈Bound〉(1982), 〈Contact at 10th & 2nd〉(1983)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작품인 〈Satisfyin' Lover〉(1976)은 비평가들로부터 일상적 동작의 사용을 인정받은 작품으로써 선정하였고, 두 번째 작품인 〈Bound〉(1982)는 팩스톤이 접촉즉흥을 발전시키는 시기에 만든 솔로작품으로서 접촉즉흥기법에서 벗어난 작품인 동시에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아지는 작품이므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 작품인 〈Contact at 10th & 2nd〉(1983)는 팩스톤의 작품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인정을 받는 접촉즉흥기법이 가장 잘 활용된 작품으로서 선정하였다. 작품분석에 앞서 일상의 개념을 다양한 학문분야의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시대적 상황에서의 무용의 변천을 바탕으로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팩스톤의 작품 영상을 서술적 분석으로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1967년 작 〈Satisfyin'

Lover)의 경우 작품의 일부가 담겨진 영상을 분석했다는 것이며 이에 따른 한계를 인지하여 샐리 베인즈의 저서인 『포스트모던댄스』(1991)에 실린 작품의 연출노트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2. 일상과 일상적 움직임

1) 일상의 개념

팩스톤의 작품에서 드러난 일상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관련한 개념들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일상과 일상생활 그리고 일상성 같은 개념들이 학문적으로 조명되고 예술로 편입되기까지의 과정에 내재된 인식의 변화 역시 고려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일상성을 언급한 최초의 학자로서 마틴 하이데거를 비롯하여 1960년대 일상생활의 사회학과 이러한 일상적 요소가 예술작품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조명되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하이데거는 오랜 시간동안 서양철학에서 인지되어온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부정하였다. 이기상(2006)은 그가 전통적 형이상학이 간직해온 이성중심의 논리를 비판하였고 그러한 논리가 발전하는 기술과 과학의 토대라고 보았다고 저술하였다. 이성중심의 논리는 칸트의 철학에서 비롯한 것으로 그의 철학이 인간의 이성만을 중시하며 외부세계와 관련한 증명에 취약했던 반면 하이데거는 외부세계의 실존을 증명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었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세계 속의 인간으로서의 관점은 자연스레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 지닌 행태 그리고 세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게 되었다. 그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현존재(Dasein)’는 아무런 전제를 지니지 않는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하고 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에 던져져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인간은 때문에 평균적 ‘일상성(Alltäglichkeit)’과 관련하며 타인과 더불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일상성은 현존재가 대개 살아가는 존재의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독일어로 'Alltäglichkeit'라고 표기된다. 이 단어 안에는 'alle tage'라는 모든 날들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일상성은 사람들이 나날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²

그는 예술을 현존재가 드러나는 독특한 유형으로 이해하였고 어둠과 두려움이 내재된 것, 기술과 반대되는 성향의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급격한 기술의 발전을 사회적 배경으로 지니는 포스트모던의 시기가 그에게 논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상생활은 1960년대에 학문적으로 조명되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인류의 발전에 긍정적이던 근대적 합리성과 자본주의 사회가 모순을 드러내고 여기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던 시대적 흐름의 영향이 존재한다. 이 시기에 일상생활은 본격적으로 학문적 주제로 대두되었다. 일상생활의 사회학에서 언급되어지는 학자들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vre)와 미셸 마페졸리(Michel Maffesoli) 그리고 아그네스 헬러(Agnes Heller)이다. 이들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을 지닌 학자로서 경쟁자본주의가 불러온 상품의 세계가 인간의 일상생활을 쇠퇴시킨다는 관점을 지닌다. 르페브르에게 일상생활은 시대적인 성격의 것으로 극복되어야 할 요소로 간주되었다. 강수택(1998)은 르페브르가 주장한 일상성이 이중적인 특성을 지녔다는 것과 개인의 일상생활의 양식이 현대의 기술과 소비사회의 특성에 의해 소외당한 상태이므로 극복되어야 할 요소로서 간주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르페브르와 함께 『일상생활의 사회학』(1994)을 저술한 마페졸리 역시 일상생활은 소외되었다고 보고 일상성이 가진 시대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며 『현대세계의 일상성』(2005)에서도 일상성이 곧 사회를 알기위한 실마리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산업화 사회가 가져온 축적과 비축적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가 조작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일상을 변화시키고 이는 곧 결집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상을 다루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므로 일상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² 조형국, 「M.하이데거: 일상의 발견」, 『존재론연구』 15권, 2007, 213쪽.

고 보았다. 헬러는 일상생활을 모든 인간들의 생활로 바라보고 위의 두 학자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소외를 극복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차이점으로는 일상생활을 인간학적인 접근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강수택(1994)은 헬러가 개인이 '작은 세계'를 직접적으로 재생산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이를 통해 개인이 사회 전체를 의미 하는 '큰 세계'를 간접적으로 재생산하게 된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일상생활을 반복되어지는 인간의 평범한 생활로 보고 다가올 사회를 극복하기위한 방법으로서 그 개념과 성질을 파악하기위해 노력하였다. 학자간의 관점의 차이는 드러나지만 공통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간주되어졌다. 또한 공통적으로 언급된 사회와 과학 혹은 기술과 도시와 같은 요소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이들의 연구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인간에게 작용하는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학자들의 접근들을 통해 일상과 관련한 개념들은 반복되는 인간의 생활을 의미하며 되풀이되는 평범한 성질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예술과 밀접한 시기로는 포스트모던 시기의 예술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예술은 전통적으로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고급의 문화였으며 귀족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오랜 시간 이어져왔고, 칸트의 미학 아래 예술은 일상과 분리되어 그 지위를 지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포스트모던시대가 도래하기 이전부터 부정되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실용주의 미학 즉, 프래그머티즘 미학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다. 프래그머티즘 미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는 『경험으로서의 예술』(2003)에서 하나의 경험으로 예술을 바라보았고 그의 경험론 아래 전통적 철학의 이원론을 부정하였다. 그에게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이 예술가를 통해 다듬어져 순수예술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예술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것으로서 조명되어졌고 동시에 일부 계층에게만 향유되는 것은 비판적인 시각으로서 이해되었다.

Dewey의 예술철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인 “경험”은 예술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일차적 단계로 보고 의도적으로 다듬어진 이차적 단계의 경험은 순수예술로 보고 있다. Dewey의 미학에서 대표되는 경험은 특정한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경험 속에서 다듬어진 하나의 경험에 관한 것이다. 결국, Dewey의 일상 경험은 예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술 또한 일상 경험을 지성적으로, 창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³

이러한 듀이의 사상은 시대를 앞선 것으로 당시의 예술이 발전해나간 방향과는 거리가 존재하였다. 외려 포스트더니즘 시기의 미술작품들이 그가 주장한 경험예술론을 실천한 사례로서 언급되어지고 있다. 박수현(2008)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 미적인 것을 생산하던 재현적 미술과는 달리 사회와 문화, 경계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일상에 기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일상은 소재로서, 내용으로서, 주제로서의 모든 범위의 역할을 해왔음을 지목하였다. 또한 예술의 순수성이 강조되는 고급 예술에서 대중이 그 중에 있는 대중예술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속에서 친숙한 일상적 이미지와 경험의 표현은 더 이상 특정계급만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복잡하고 실험적인 예술양식으로 표현되었다. 이 시기의 사상은 반이성적이고 다원적이며 총체성을 거부하고 체제에 대한 반성으로서 대변되어지며 이러한 시기 예술은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삼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일상성에 관해 언급한 아서 단토(Arthur Danto)는 그의 저서 『무엇이 예술인가』(2014)에서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품을 중심에 두고 작품이 지니는 일상성이 곧 예술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칸트의 시대에서 미술이 특별한 지위를

³ 손재현, 성재형, 「Dewey의 실용주의 미적 경험과 무용」, 『한국체육철학회지』 제7권 4호, 2009, 334-335쪽.

지니고 미술관에 보존되었으나 포스트모던의 미술은 성장하여 다른 국면을 맞이하였다는 그의 언급은 포스트모던의 예술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파격적이었는가를 가늠하게 해준다.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예술은 그 순수성이 강조되었던 고급예술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였고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

팩스톤의 작품에서 드러난 움직임을 살펴보기에 앞서 움직임에 있어서 일상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성을 지닌 것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먼저 일상의 개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상의 성질은 매일 반복되는 것과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것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겠으며 따라서 움직임에 있어 반복되는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과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것이라는 두 성질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성질인 반복되는 삶에서의 실천은 동작적 분류기준으로서 여기에는 기초적인 생활에서 사용되는 옷입기와 이동하기, 식사하기, 옷 입기와 같은 움직임을 들 수가 있겠다. 1950년대에 시드니 캣츠(Sidney Katz)에 의해 고안된 일상생활동작학(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장애로 인한 신체를 돌보는 활동 수행에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위한 분류이다. 대체로 자신의 신변을 돌보는 행위를 위시한 11가지의 범주로 동작을 살핀다. 이는 목욕하기, 대소변조절관리, 수면과 휴식 등의 분류로 되어있다. 분류에서도 중요시 되는 다섯 가지의 항목은 옷 입기, 먹기, 자신의 위생관리, 이동하기이다. 이와 같은 항목들은 인간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분류된 것으로서 무용의 움직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범주로서 보아야한다고 사료되었다. 무용에서의 동작이 일상성을 지닌다는 것은 자신의 신변을 돌보기 힘든 환자들을 위한 분류와는 차별되어진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복되는 삶에서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작품의 움직임이 평범한 삶에서 등장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류를 살폈다. 즉 움직임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실행되어지는 것

인 걷기, 달리기와 같은 것인가의 여부를 연구자 임의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움직임의 분류만으로 동작이 일상적 특성을 지닌다고 바라보기 힘들며 움직임이 무용적 재단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이 가진 주요한 부분이므로 부가적인 성질로서 다음의 성질과 함께 살펴져야 한다.

두 번째 성질인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것은 무용예술의 특성과 무용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포스트모더니즘의 저항정신이 내재되어진 기준으로 의미를 지닌다. 평범한 것은 포스트모던댄스에 있어서 모던댄스에서 행해진 기법적 움직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1940년대에 들어 모던댄스는 발레의 정형성을 버리고자 했던 초기의 정신에 위배하여 자신들만의 형식과 기교를 생산해내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마사 그레이엄(Matha Graham)의 '수축과 이완(Contract and Release)'과 도리스 험프리(Doris Humphrey)의 '낙하와 회복(Fall and Recovery)'을 들 수가 있으며 스타성을 지닌 무용수들은 더 이상 혁신적이거나 창조적인 움직임을 선보이지 않았다. 이미 특정지위를 가진 무용가들의 행태에 저항하는 젊은 무용가들은 이러한 기법들을 거부했고 전통적 기법을 배제하고 실험적인 작업을 이어나갔다. 홍경화(2012)는 포스트모던댄스에는 전통과 고전이 배제되었으며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대중과 공유 가능한 예술로의 자리매김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안무의 핵심으로 일상적인 움직임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 무용수와 관객과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것, 시공간과 신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작품에 표현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포스트모던댄스의 주역으로 평가되는 이들이 일상적인 움직임을 사용했다는 것은 모던댄스의 기교를 거부하는 시도로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동작의 사용함은 관객과의 관계에도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새로운 시각으로서 인정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걷기와 같은 동작의 경우 기존의 작품에서 걷기가 단순한 이동의 목적 혹은 무용적 자제로 정제되어 재구성되었다면 포스트모던댄스에 있어서 걷기는 작품의 주요동작으로서 날 것의 상태로 선보여진다. 이때의 평범한 동작은 어떠한 인위적인 재단이 거치지 않은 상태로 작품의 주요 동작으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지니며 이것이 일상적 움직임의 두 번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일상적 움직임은 컨템포러리댄스로 이행되어 포스트모던댄스에서 주입된 일상적 특성을 지닌 오브제 그리고 의상과 함께 무대에 선보여진다. 단순히 일상적 동작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선보였던 포스트모던댄스와는 달리 보다 극적인 리듬감으로 사용되는 오늘날의 변용은 관객에게 공감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평범한 동작으로 창작된 예술작품으로서 무대에 존재한다. 이러한 비무용적인 동작들의 등장과 적극적인 사용은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한다. 박서영(2014)는 이를 일상성 융합 양상으로 바라보았으며 컨템포러리댄스에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어 관객과의 소통을 확대시킨다고 바라보았다.

3. 스티브 팩스톤의 작품활동

팩스톤은 1939년 미국 아리조나에서 출생하여 고교시절 체조선수로 활동하였다.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용을 접한 그는 마사 그레이엄의 기법으로서 무용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958년 코네티컷 대학에서 도리스 험프리, 호세 리몽, 머스 커닝햄과 같은 당대의 가장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무용가들에게 수업을 들었다. 이후 1960년 리몽의 무용단에서 활동하고 바로 다음해인 1961년부터 1964년 까지 커닝햄의 무용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하였다. 커닝햄의 무용단에서 그는 무용수들이 지닌 무용기술들과 무용단 내에 존재하는 계급적인 구조에 대한 회의감을 가졌다. 때문에 그의 초기 작품은 커닝햄의 작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 창작 동기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당시 가장 급진적인 창작을 해나가던 커닝햄이 움직임의 소재들에 있어서 언급을 꺼렸다는 점과 무용단의 계급적 분위기가 작품에 드러난다는 면이 그에게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의구심은 〈Proxy〉(1961)에서 드러났는데 걷기, 먹기, 마시기와 같은 일상적 행위를 선보인 이 작품은 저드슨 댄스 씨어터의 첫 발표회에서 공연되었다. 일상적인 동작들로 주목된 작품은 기존의 무용이 가져온 관념들에 의문을 드러내

는 것으로 해석되어졌으며 이러한 동작들은 팩스톤의 작품들에서 핵심적인 소재로 활용되어진다. 특히 그의 안무성향에 관련한 내용에서 늘 언급되어 지는 '보행동작(Pedestrian Movement)'는 일상에서 걷기를 발전시켜 사용된 동작으로 접촉즉흥과 더불어 그에게 주요한 동작기법으로서 인정되어지고 있다. 비무용적인 동작으로서 선택되어진 걷기는 누구에게나 행해지는 일상적인 동작으로서 공연을 행하는 무용수와 관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요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스티브 팩스톤은 누구나 무용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무용동작이 될 수 있다하였다. (...) 움직임에 있어서 이상적인 행위, 짜여지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 한다거나, 몸을 굽적이고, 웃고, 기침하는 행위들이 관객들이 느꼈을 때 함께 공연을 하고 있다는 동질성을 느끼게 해주었다.⁴

저드슨 댄스 씨어터를 설립한 무용가중 한명인 팩스톤은 로버트 던(Robert Dunn)의 워크숍을 통해 이들과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본느 레이너(Yvonne Rainer), 시몬느 포르티(Simone Forti),Judith Dunn)등의 무용가들과 1962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1962년 이들의 발표회는 비평가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다루어졌다.

이 발표회에 참가한 모든 비평가들은 즉각 이것이 모던댄스의 역사에서 어떤 신호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렌 휴즈는 그의 공연평을 “관습적인 것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하여 다음의 말로 끝을 맺었다. “같은 그룹이 또 다른 때 다시 발표회를 가져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이 나라의 무용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런 가능성 때문이라도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⁵

이처럼 혁신적인 작품세계로 주목받은 이들은 커닝햄의 영향으로 우연성과 해프닝의 요소를 지니고, 일상적 움직임을 사용하였으며, 타 장르와의

⁴ 홍경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와 컨템포러리댄스의 특징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학 회지』 제12권 2호, 2012, 87쪽.

⁵ 샬리 베인즈, 〈저드슨 댄스 씨어터의 탄생〉, 《공연과 리뷰》 91호, 이승엽 역, 2015, 234-235쪽.

협업을 진행하는 한편 공연공간을 확장하였다. 이는 모던댄스가 가졌던 소통의 부재 그리고 극장예술의 지위, 기법적인 재생산의 면모를 부정하는 것으로 체제에 대한 반발은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이들의 활동을 결집시켰다. 점차적으로 개인적 활동이 활발해지며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이후 1970년 팩스톤은 더글라스 던(Douglas dunn), 데이비드 고든(David Gordon)등과 그랜드 유니언이라는 즉흥무용그룹을 결성하였다. 구성원들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안무자와 지도자의 역할을 서로 번갈아 맡았으며 1976년까지 활동하였다. 이 그룹은 레이너를 주축으로 활동하였다고 평가되어지며 다양한 장소에서 즉흥적인 공연은 때로 뜻밖의 성과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안주애(2008)는 그랜드 유니언의 작업과정이 지닌 불예측성과 그룹의 공통된 목표의 부재가 장점이자 매력으로 비추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점차 창작의 방식이 일치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작품을 반전시키는 것을 지속시키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점이 이들이 활동을 마치게 된 이유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랜드 유니언의 활동 시기에 팩스톤은 일본의 무술인 아키도(Akido)를 연구하기 시작하며 구르기와 낙법과 같은 동작들을 실험하였다. 아키도의 자연적인 표현방식은 그가 선보였던 일상의 움직임과 일치하는 방향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아키도에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계획적인 동작은 우주에 있는 에너지의 원천인 기의 자연적 표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오직 신체가 우주와 조화를 이루어 보호적인 반사(자연적 반응)를 따르도록 허용함으로써만 그리고 동작을 지배하는 사고들(세속적이고 비자연적 반응들)을 긴장시키고 허용하기 위해서 충동들을 재훈련시킴으로서만 아키도는 실천 될 수 있다⁶

6 지민혜, 「스티브 팩스톤의 접촉즉흥에 관한 연구」, 2001, 50쪽.

베닝턴과 어버린 대학 등에서 행해진 팩스톤의 워크샵들은 그의 실험적 작업이 점차 무용의 형태로 이어지도록 발전시키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버린 대학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Magnesium〉(1972)에서 11명의 남학생들은 두 명씩 파트너를 구성하여 서로 당기고 끌려가는 동작을 선보였다. 때론 상대를 들어올리고,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은 움직임과 체중을 주고받는 신체적인 행위는 팩스톤에게 신체를 통한 대화로 받아들여졌다. 일상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지닌 이러한 신체적 대화에 흥미를 느낀 그는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갔다.

이처럼 일상적인 동작을 바탕으로 생성되어지는 접촉즉흥은 다양한 순간들에서 대응해 나가는 무용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키도(Aikido)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표현은 합기도로 기(氣)를 기본원리로 가지며 자연의 기와 인간의 정기(精氣)를 일치시키기 위한 수련을 거듭하는 무술이다. 합기도의 기본원리는 원(圓), 유(柔), 화(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은 직선적이지 않은 원운동이 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는 힘의 흐름에 따른 동작의 수행으로 자연 상태의 운동이 순환이나 회전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화는 상대의 동작과 화합하여 동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조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합기도의 기본원리들은 원형의 움직임과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무용수간의 에너지 교류 그리고 관객과의 에너지 교류의 면에서 부합한다.⁷

이처럼 접촉즉흥은 안무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동작을 선보이는 것으로 인정되어졌는데 지민혜(2001) 역시 대부분의 접촉즉흥 동작들이 비예술적 동작에서 응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손을 제외한 신체부위의 접촉을 통한 움직임이 생성되는 접촉즉흥기법은 이완된 신체에서 서로의 체중을 이용한 동작들로서 1973년부터 1997년 사이 급속한 주목을 받게된다. 1976년 계간지인 《Contact Quaterly》의 영향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접촉즉흥은 팩스톤의 이력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기도 한다. 그

⁷ 윤미정, 김영환 「Steve Paxton의 Contact Improvisation과 Aikido의 상관성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2권 1호, 2004, 434쪽.

러나 그는 접촉즉흥이 어떠한 면에서 움직임의 제약을 한다고 보고 그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Walker Art Center에서 열린 강연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2007년 《Artforum》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관심사가 언제나 걷기에 있어왔음을 언급하였다.

그의 무용활동은 일상적인 동작으로서 모던댄스에 대한 거부로 시작되었다. 무용수로 활동하며 자신이 거부하던 기법과 계급적 구조에 대한 의구심은 포스트모던댄스를 시작하고 발전시켰던 무용가들과 같은 목적의식을 지니게 하였다. 초기 활동에서 기교적 움직임이 철저히 배제된 일상적 움직임의 사용은 아키도의 영향과 다양한 실험적 변주를 거쳐 접촉즉흥기법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접촉즉흥 역시 그가 순수한 움직임을 추구하기 위하여 거듭한 실험적인 작업의 연결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명될 수 있겠다.

4. 작품에서 드러나는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

1) 〈Satisfyin' Lover〉(1967)

이 작품은 팩스톤의 초기 작품인 〈Proxy〉와 함께 커닝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난다고 인정되어지는 작품이다. 무대 위에 놓여진 의자 3개가 유일한 소품으로 거리에서 선택된 다양한 성과 인종 그리고 체격의 무용수들이 상수에서 하수로 이동한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걸어서 등장하고 퇴장하며 일부는 의자에 앉기도 일부는 정면을 응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등장하는 움직임은 걷기와 앉기, 일어서기와 같은 단순한 분류의 것이다. 샐리 베인즈(Sally Banes)의 저서인 『포스트모던댄스』(1991)에 실린 작품의 연출 노트에 의하면 이 작품은 “걷기, 서기, 그리고 앉기에 관한 것이다.” 때문에 움직임은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의 실천되는 동작분류에 포함된다. 또한 무용과 연관한 훈련을 받지 않은 비무용수들의 공연으로서 비기교적 움직임이라는 성질도 충족한다. 공연자들에 내려진 지시사항으로는 편안한 상태의 걷기를 할 것, 이를 순수한 형태로 유지할 것 그리고 시선을 특별히 고정

시키지 않을 것과 같은 단순한 것이다. 이러한 지시사항은 숙련된 무용수로 이루어진 공연과 달리 누구에게나 행해질 수 있는 일상적 움직임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안무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비무용수의 기용은 전통적으로 무용이 가져온 신체적 정렬상태를 벗어난 걷기동작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때문에 움직임은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의 실천되는 동작분류와 비기교적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분석된다. 이러한 보행동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동작인 동시에 '무용적이지 않은' 동작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스스로도 실행이 가능한 동작들을 평범한 사람들이 공연하는 모습은 감상하는 관객들에게 무대 위의 무용작품과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어준다. 공연자가 입은 각자의 평범한 의상과 더불어 무음악의 음향으로 진행되는 이 작품은 순수한 일상적 동작인 보행동작을 그 중심에 둠으로써 팩스톤의 저항정신을 보여준다. 저명한 미국의 무용이론가 베인즈는 이 작품을 “보행동작을 신격화 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완된 신체에서 수행된 보행동작이 공식적으로 무용동작으로 인정되어지며 예술작품의 일부가 된 것이다.

2) 〈Bound〉(1982)

1970년대에 팩스톤이 접촉즉흥기법의 움직임을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했다는 점에 이 작품이 발표된 1980년대는 의미를 지닌다. 1982년 로마의 Spazio Zero에서 초연되고 1983년 영상으로 만들어졌다. 작품분석에는 1983년 촬영된 영상이 사용되었다. 팩스톤 스스로가 무용수로서 공연한 이 작품은 의상의 전환, 프로젝션의 사용, 조명의 활용 그리고 다양한 일상적 소품을 이용했다는 점이 전작에 비해 두드러진다. 무대적인 효과장치가 활용되는 것에 비해 각종 소품들을 다루거나 조작하는 팩스톤이 모습은 비교적 단조롭고 감정적 표현을 배제한 태도로 일관한다. 요람과 흔들의자 그리고 종이상자로 만들어진 탱크모양의 소품 등은 시대적인 배경을 암시하는 한편 동작 속에 연결고리나 스토리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순간적인

이미지와 단상들이 관객으로 하여금 고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요람과 흔들의자 사이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은 가족을 그리워하는 듯 보이기도 하나 동시에 삶의 흐름 속에 놓여진 인간으로서 무용수를 조명하기도 한다. 무음악과 연주곡 그리고 전자음이 교차되는 음향은 지속적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소품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의 태도는 지극히 일상적이며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스튜디오의 문을 통해 소품을 들고 무심하게 등장하거나 퇴장하는 모습은 관객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일관되었다. 일체의 감정적 전달 없이 선보이는 동작과 소품을 다루는 태도는 관객으로 하여금 조용히 그를 관찰하도록 만든다. 소품과 관련한 무용적이지 않은 움직임들은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것들로서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이 지닌 첫 번째 성질인 매일 반복되는 동작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반면 팩스톤이 비교적 음악에 종속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즉흥적인 솔로 동작들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예측이 불가능한 스텝과 회전, 상체의 기울임 등이 주로 관찰되며 이완된 신체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팔동작은 당겨지거나 뺏어지는 에너지를 보이지 않고 험거운 원형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며 발동작은 부드럽고 민첩하게 스텝을 밟는다. 상체의 기울임과 반복되는 회전동작 속에서 그의 신체는 나선형의 곡선과 같은 형태를 보이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느슨한 신체의 동작들은 즉흥적이며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동작들이 비무용적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나 비기교적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가 가진 이완된 에너지는 기존의 무용작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전달한다. 또한 자유로운 발끝모양과 느슨한 신체정렬을 통해 무용적 기교들을 기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때문에 본 작품에서 그의 움직임의 일부는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의 첫 번째 성질인 매일 반복되는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동시에 비무용적이나, 즉흥적 솔로 부분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성질은 약화되나 여전히 비무용적 안무성향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 작품은 전작에 비해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이 작품전반적으로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비기교적 움직임을 행한다는 점에서 작품은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Contact at 10th & 2nd〉(1983)

이 작품은 접촉즉흥이 주목을 받은 이후 널리 행해지던 시점의 것으로서 일종의 시범공연으로서 선보여졌다. 오늘날까지도 접촉즉흥기법의 교과서적 작품으로서 인정되어지며 따라서 발전된 형태의 접촉즉흥이 능숙히 실천되어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기법의 특성상 접촉즉흥을 통한 움직임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숙련된 무용수들에 의해 행해지는 이 작품은 관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무용수들의 등장과 퇴장으로 지속된다. 등장의 순서는 무용수들의 의지에 맡겨져 있으며 먼저 등장한 무용수는 이후 등장한 다른 무용수와 서서히 호흡을 맞추어가며 접촉즉흥을 선보인다. 서로의 체중과 에너지를 교환해야하므로 상대방의 호흡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무용수들은 이완된 신체로 동작에 임하며 반면 긴장된 분위기는 관객으로 하여금 움직임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의 흐름이 점차 감소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연히 동작은 마무리된다. 동작을 끝낸 무용수는 다른 상대를 찾거나 퇴장을 하기도 하며 무대 위에서는 여러 그룹의 접촉즉흥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두 명 이상의 무용수가 그룹이 되어 이루어지는 움직임은 무대 곳곳에서 서로의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해 나가며 조화를 맞추려는 노력의 결과물로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무용수들에게 몰입된 관객들은 이들이 처한 난처한 상황에 함께 웃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상대방을 들어 올리거나 뛰어넘는 격한 움직임으로 까지 발전되지만 민첩하고 강한 동작에서도 무용수의 신체는 느슨한 상태로 유지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선보여지는 움직임들을 통해 관객은 동작이 미리 정해지거나 약속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예측이 불가능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가는 무용수들의 능력을 감상하게 된다. 무용수들이 순간의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보이는 것과 함께

동작을 펼치는 무용수와 어떠한 에너지의 흐름을 주고받는 것인지가 작품의 분위기를 시시각각 변화시킨다.

작품에서 선보여지는 움직임은 접촉즉흥기법으로 만들어진 즉흥적 반응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들거나 들려지고, 구르거나 기대는 동작들을 다양한 상황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서 수행한다. 분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들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동작이기도 하나 일부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들이 숙련된 무용수으로써 각 상황에 따라 어렵지 않게 에너지를 전환하거나 리프트 동작을 수행하는 부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여진 움직임들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 중 첫 번째 성질인 매일 반복되는 동작의 분류 면에서는 일부 벗어나 있다. 반면에 이완된 신체와 부드러운 호흡으로 일관하는 무용수들은 동작을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지만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지 않고 전통적인 무용동작도 선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이 지니는 두 번째 성질인 비무용적 성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접촉즉흥이 가진 규칙들은 곧 하나의 안무방법으로 무용수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성에 의한 예측불가능한 성질의 것 그리고 기존의 무용기법을 부정한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안무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작으로 본 작품의 움직임은 전통적 무용의 것을 벗어나 일상적 에너지를 가진 새로운 동작들이라는 점이 유의미하다.

5. 결론

일상적인 소재와 소품의 활용 그리고 일상에서 발견되는 동작들의 사용과 같은 일상적 특성은 포스트모던댄스의 특질로서 늘 언급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인 특성이 어떠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어떠한 과정으로 무용작품에 생성되었는가에 관한 선행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특성이 발현된 배경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포스트모던댄스의 대표적인 인물인 스티브 팩스톤의 작품에 내재된 일상적 움

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일상과 관련한 개념들을 다양한 학문적 접근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었다.

먼저 1920년대 하이데거에 의해 일상과 관계성을 가진 철학적 사고들은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 사회학자들은 일상생활을 중요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바라보았다. 하이데거는 칸트와 데카르트와 철학자들로 대표되는 서구의 형이상학적 사고에 반하는 사상으로서는 인간의 존재를 중심으로 사고하던 인식을 벗어나 존재하는 세계를 주목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사상에는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이 잠재적인 위험이라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1960년대 사회학자들과 일치되는 성향을 가진다. 르페브르와 헬러와 같은 사회학자들 역시 급속한 발전 속에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소외를 주장하였으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일상과 관련한 개념들은 매일 반복되는 인간의 삶 그리고 평범함과 관련이 있으며 때문에 전통적인 예술에서 경시되는 것이었다.

예술은 특별한 것이며 고급계층에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은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사상은 포스트모던의 시대에서 변화를 맞이하였다. 팝아트와 개념미술의 예술가들은 일상의 소재를 작품에 반영하였고 이러한 일상적인 특성이 예술로서 인정되어지며 사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포스트모던댄스 역시 동시대의 흐름 속에 있었으며 이 시기를 대표하는 무용가로서 스티브 팩스톤은 조명된다. 그는 일상적인 동작인 보행동작을 작품에 사용하여 주목을 받았고 새로운 개념의 안무법인 접촉즉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그의 안무성향에는 무용단 시절에 느낀 문제의식이 반영되어있으며 기존의 무용예술이 가져온 관습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있다. 정형화된 움직임들과 무용수간의 위계적 질서가 그것이며 이러한 관습들이 그로 하여금 기존의 무용기법들을 부정하고 순수한 움직임을 생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게 했다. 본 연구에서는 팩스톤의 세 작품을 분석하여 그의 작품 전체에 내재된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은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성

질, 포스트모던댄스가 지양한 무용기법들을 거부하는 비무용적 성질의 두 요소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Satisfyin' Lover〉(1967)는 보행동작의 활용이 두드러지며 비무용수인 공연자들을 통한 걷기와 앉기 그리고 정지동작이 어떠한 의도적인 조작 없이 그대로 무대 위에서 수행되었다. 이완된 신체가 선보이는 자연스러운 보행동작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수행되며 일체의 무용적 기교가 포함되지 않은 움직임으로서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다. 〈Bound〉(1982)는 다양한 일상적 소품을 이용한 단순한 움직임과 즉흥적인 솔로동작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때문에 일상에서 수행되는 동작과 그렇지 않은 일부 동작들이 포함되어있다. 솔로로 진행되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일체의 현대무용의 기교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완된 신체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동작이 지닌 에너지를 가진 움직임이나 분류 면에서 일부 벗어나 있고, 두 번째 성질인 비무용적 성향은 내포되어있다. 〈Contect at 10th & 2nd〉(1983)는 팩스톤의 이력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 손꼽아지는 접촉즉흥법을 선보이는 작품이다. 자연그대로의 에너지를 중시하는 기법의 특성은 움직임에 드러나며 이완된 신체에서 무용적 기교가 배제된 동작이 만들어진다.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동작의 분류에서는 일부 벗어나나 일상적인 에너지를 지닌 상태로 수행되며 무용적 기교는 사용되지 않아 비무용적이라는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을 보인다.

초기 그의 작품에서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은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강하게 내포되어졌으나 이러한 시도는 점차 발전하여 일상적 에너지를 지닌 색다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완된 신체로 사전에 구성되거나 조작되지 않은 순수한 움직임들을 선보이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동작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움직임들을 자신의 의지가 아닌 에너지의 흐름과 타성에 따라 생성되는 접촉즉흥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이러한 일상적 움직임의 등장은 기존의 무용계가 지니고 있던 정형적인 움직임과 무용수간의 계급적 구조 그리고 고립된 예술장르로서의 소통의 부재와 같은 배경적 원인을 지닌다. 이러한 전통적 관습과 구조적 문제들은 팩스톤을 비롯한 무용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거부되며 권위와 총체성과는 거리가 먼 포스

트모던댄스의 특성을 형성하였다. 전통적 위계질서와 억압으로부터 탈피하려는 강한 의지로서 전략적인 일상의 편입은 조명될 수 있다. 여기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이루어진 일상의 미학화 현상이 배경으로 작용했으며 일상이 예술로 또한 예술이 일상으로 교차하는 시대의 변화가 동행되었다. 때문에 팩스톤의 작품활동을 관통하고 있는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은 기존의 무용예술을 거부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로서 조명되어야 한다. 그가 주목했던 일상의 움직임과 그 특성은 오늘날의 컨템포러리댄스로 이행되어지고 있으며 한 시대의 무용예술이 가졌던 예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가 그가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접촉즉흥과 작품들 그리고 포스트모던시대의 무용이 지닌 특성들을 고찰하였으나 일상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 포스트모던댄스의 무용가들이 선보였던 일상적 움직임의 특성이 새롭게 재조명되어지고 동시대의 안무가들이 선보인 다양한 시도에 내재된 일상적 특성 역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 이기상, 『존재와 시간』, 살림출판사, 2006.
- Danto, A. C., 『무엇이 예술인가』, 김한영 역, 은행나무, 2015.
- Dewey, J.,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재언 역. 책세상, 2003.
- Banes, S., 『포스트 모던댄스』, 박명숙 역, 삼신각, 1991.
- Lefebvre, H.,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기파랑, 2005.
- Maffesoli, M. 외, 『일상생활의 사회학』, 박재환 외 역, 한울, 1994.

논문

- 강수택, 「아그네스 헬러의 인간학적 일상 생활론 연구」, 『현상과인식』 61호, 1994.
- 김다정,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 나타난 일상적 경험의 실천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서영, 「컨템포러리댄스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던댄스의 미적 특질 및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72권 6호, 2014.
- 박수현, 「일상을 통한 도자조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손재현, 성재형, 「Dewey의 실용주의 미적 경험과 무용」,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7권 4호, 2009.
- 안주애, 「포스트모던댄스그룹의 창작작업에 나타난 즉흥의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오양숙, 「포스트모던 예술과 일상생활의 상호 관계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윤정, 「다니엘 스포에리(Daniel Spoerri)의 ‘이트 아트’에 나타난 일상성의 미학」, 『미술사학보』 제26호, 2006.
- 윤미정, 김영환, 「Steve Paxton의 Contact Improvisation과 Aikido의 상관성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2권 1호, 2004.
- 조형국, 「M.하이데거: 일상의 발견」, 『존재론연구』 제15권, 2007.

지민혜, 「스티브 팩스톤의 접촉즉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홍경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와 컨템포러리댄스의 특징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제12권 2호, 2012.

기타

샬리 베인즈, 〈저드슨 댄스시어터의 탄생〉, 《공연과 리뷰》 21권, 이승엽 역, 2015.

비메오 <https://vimeo.com>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Absract

Characteristics of Everyday Movement Represented in Steve Paxton's Works: Focused on *Satisfyin'* *Lover, Bound, Contact at 10th & 2nd-*

KIM, Hyunhee

Sungkyunkwan University

Phd. candidat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everyday movement showed in performances of Steve Paxton. A work of art has been realized as a special object enjoyed by high class people as high culture for a long time. Therefore, a gap between everyday life and art has been greatly existed, and the emergence of everyday elements in a work of art means that public awareness involving social change is changed. The postmodernism as the period when a boundary between art and everyday life is uncertain was a postwar society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a social situation that rapidly changes into a capitalistic society. Changes in this time made scholars gain access academically concepts related to everyday life, and affected artists as the spirit of the times of pluralistic postmodernism refusing totality. At the same period of the time, modern dance also faced a turning point as post-modern dance.

After the Second World War, modern dance started to be evaluated as it reaches the limit, and at this juncture, headed by dancers including the Judson Dance Theatre. Acting as a dancer in a dance company of Merce Cunningham, Steve Paxton, one of founders of the Judson Dance Theatre, had a critical mind of the conditions of dance company with the social structure and the process that movement is made. This thinking is showed in early performances as an attempt to realize everyday motion itself in performances. His early activity represented by a walking motion attracted

attention as a simple motion that excludes all artful elements of existing dance performances and is possible to conduct by a person who is not a dancer.

Although starting the use of everyday movement is regarded as an open characteristic of post-modern dance, advanced researches on this were rare, so this study started. In addition, studies related to Steve Paxton are skewed towards Contact Improvisation that he rose as an active practitioner. As the use of ordinary movement before he focused on Contact Improvisation, this study examines other attempts including Contact Improvisation as attempts after the beginning of his performances. Therefore, the study analyzes *Satisfyin' Lover*, *Contact at 10th & 2nd* and *Bound* that are performances of Steve Paxton, and based on this, draws everyday characteristics. In addition, related books, academic essays, dance articles and reviews are consulted to consider a concept related to everyday life and understand dance historical movement of post-modern dance.

Paxton attracted attention because of his activity starting at critical approach of movement of existing modern dance. As walking of performers who are not dancers, a walking motion showed in *Satisfyin' Lover* gave esthetic meaning to everyday movement. After that, he was affected by Eastern ideas, so developed Contact Improvisation making a motion through energy of the natural laws. In addition, he had everyday things on his performances, and used a method to deliver various images by using mundane movement and impromptu gestures originating from relaxed body. Everyday movement of his performances represents change in awareness of performances of the art of dancing that are traditionally maintained including change of dance genre of an area. His activity with unprecedented attempt and experimentation should be highly evaluated as efforts to overcome the limit of modern dance.

Keywords

Steve Paxton, Characteristics of Everyday Movement, *Satisfyin' Lover*, *Bound*, *Contact at 10th & 2nd*, Contemporary dance, Post-modern dance
